

두 의원 ‘입’에 격해진 여·야·청

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의원직 제명안’ 국회 제출

본회의·국정원개혁특위·예결특위 정상화엔 합의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원개혁특위 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공전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도 잠시 파행되는 등 곳곳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전원이 갈뿔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취소를 요청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 참석했으나 새누리당의 국가정보원개혁특위 불참에 대해 거세

게 항의하면서 40여 분만에 정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의 정상적 개최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국회 공전에 부담을 느낀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는 물론 국정원개혁특위와 예결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특위를 정상화한 것은 맞지만 일단 오늘 회의를 열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오전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회의를 열지 못했고, 오후 본회의 후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 기관보고를 받을 수 없었다”며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와는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을,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가이버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망언을 했다”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풍유유지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으며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석을 놓고 서로를 향한 비방전도 거세다.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못할 망언”, “저주의 국판” 등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최경

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의 발언은 정말 정치적 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저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면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발언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뒤늦어서 전혀 엉뚱한 뜻으로 몰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제명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과잉 충성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닦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새누리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인신모독 발언을 하고 당선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전력을 언급한 것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발언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 입장하는 김한길 대표(오른쪽)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도 넘는 과격 발언은 정쟁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

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어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安危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호남 주목받는 ‘安신당’ 위력은

새정치 기대감·과거 열린우리당 비교

민주·진보당 소속 일부 지역의원 탈당

박지원 “야권연대, 정권교체 힘 모아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면서 호남에서의 신당 위력이 주목된다.

‘새정추’의 출범과 함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일부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신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추’는 인물 영입과 관련해 폐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어 향후 신당 위력이 커지면 일부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탈당 러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지난 6일 광주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유선전화 RDD 방식·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 포인트), 안철수 신당 44.1%, 민주당 26.3%로 신당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18% 포인트 가량 높

았다.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한 민주당의 정권창출 실패와 독점 정당 구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안철수 신당 창당 자체와 신당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 만들어지는 신당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지방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신당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창당 효과도 미미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안철수 신당을 과거 열린우리당과 비교해 신당의 향로를 예측하기도 한다. 참여정부 집권 시절인 2003년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구도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열린당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발에 힘입어 광주에서 7석 모두 승리했고, 전남에선 13석 중 7석을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남에서 5석을 전진을 뿐 참패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모두 패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광주 5석 중 단 1석도 건지지 못했다. 전남에서 22석 중 겨우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결국, 열린당은 전통적인 야권세력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2008년 8월 현재의 민주당으로 흡수됐다.

따라서 열린당의 정치적 효과를 체감한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호남에서 경쟁구도’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기왕 하는 거 잘 해서 야권 연합·연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주창하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인) 민주당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연대해서 정권교체로 가야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독주의 정치,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2월초 창당준비위 결성…인재영입 힘 쏟겠다”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 성격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10일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변해가는 과정이며, 내년 2월 초까지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당의 대원칙은 새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다 모시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당 창당에 앞서 기득권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하겠지만 개인의 판단이 아닌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광주시장 후보보다는 우선은 희망의 새 정치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계층·지역간 갈등을 비롯,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의 고착화된 두 정치세력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민생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새 정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치의 시작은 호남이어야 한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아닌 ‘약무호남 시무희망정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삼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매,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이 이하

- 화순을 군청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층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대지 539㎡(163)8500만원
- 함평군 영일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3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변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월료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담양과 순창간 모텔 땅 1745㎡(528)건물은 160평 객실18개 은행 3억7천 개발가능한 산과 교환도 가능 5억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물게이트 입구 차량 진입 월할 2425㎡(734)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 나주시 봉황면 주택 대지 135평 주택 30평 6500만원
- 쌍춘동 원로 건물 대지 169㎡(51)건평 278㎡(84)월료 1개 쓰리룸 4개 보증금 1억원 월 110 매도 2억
- 대인동 4층 식당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6억5천 매도 8억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로·투룸·쓰리를 92개 허가, 주택가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쌍춘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춘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매리엄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 린 시 설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 독 주 택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 장 및 창 고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 지 매 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